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신 연 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적응 가능성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의 9개 교정시설에서 수집한 233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출소후의 적응 가능성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우선 사회 자본은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연결망이 강할수록, 가족 및 외부의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소 후 지역사회에의 결합가능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출소 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자기효능감도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사회자본의 강화 방안으로 시설단계에서는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그리고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성원으로 성공적으로 편입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이 출소를 앞 둔 수형자에 한정함으로써 출소자가 배제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한 종단적 연구는 후속연구의 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교정 분야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03-B00194).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사회학 박사.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예방은 범죄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율의 상승과 질적인 악화현상은 출소자들의 재범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법범 발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2%(2006년의 경우)가 전과경력이 있으며(대검찰청, 2007: 266), 교정시설 수형자의 절반이상이 입소경력이 있는 전과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07: 274). 이들 재범자들은 범죄경력 초기에는 경한 범죄로 시작하지만 범죄횟수가 증가하면서 죄질이 나쁜 강력범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재범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김승만 · 신연희, 2005: 89).

범행성 교정과 사회방위를 위해 격리되었던 수형자들은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2006년 한 해에도 8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형기종료, 노역종료,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였다(법무연수원, 2007: 276).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내·외적 자원의 상실,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기술의 변화는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하려는 출소자에게 장애물로 다가오게 된다. 여기에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출소자들이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조건에 편입하게 만드는 사회적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해 출소 후를 대비한 교정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출소자에 관한 문제 역시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출소자의 사회통합과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근거를 두고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은 사회자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출소자 재범예방을 위한 정책함의를 사회자본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이하에서는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사회자본과 범죄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자본의 정의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본을 이른다. 따라서 사회 자본은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이다.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 형성하여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라고 하였으며, 포트스(Portes, 1998: 6)는 사회적관계망 속에 있는 집단의 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으로 정의하였다.

자본의 유형에 대해 Coleman(1988)은 물질적 실체를 가지는 물질자본(physical capital), 개인이 소유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자본의 유형을 개별 행위자가 가지는 기술·지식 등과 같은 능력(인적자본, human capital)이나 물질의 소유와 관련되어 결정되는 자본(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특정 집단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으로 계급의 구분짓기와 문화적 재생산을 가져오는 자본(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본으로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성원들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자본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유석춘 외, 2002: 25-27 재인용).

사회자본의 정의는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들 사이에 발견되는 다양한 관계의 특성 즉 연결망(network)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서 린(Lin, 2001: 19)은 “사회 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한편 거시적 연구들은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에 관한 분

석을 통해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사회자본으로 논의한다(유석춘 외, 2002: 21). 대표적으로 퍼트남(Putnam)은 한 사회의 주어진 문화적 전통이 시민적 참여를 강조하는가 혹은 비도덕적 가족주의에 함몰되어 있는지로 구분하고,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utnam, 1995). 따라서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조직에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로 Coleman은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기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공동체 성원 간에 규범(norm)의 존재로 효과적인 제재(사회통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설명한다(Coleman, 1988; 유석춘 외, 2002: 98-102 재인용). 한편 Putnam(1993)은 연결망, 규범,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신뢰를 사회자본의 주된 특성으로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Coleman과 Putnam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회자본은 연결망(network)²⁾, 규범(norm),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신뢰(trust)라고 할 수 있다(유석춘 외, 2002: 47). 다시 말해 개인들 간에 연계망을 통해 협력과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성, 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여 호혜를 가져오는 규범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자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Coleman(1988)은 인적자본(개인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형성하는데 사회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포기율이 가족 내에서의 사회자본³⁾에 의해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이 긍정적일수록 학업포기율은 낮아졌으며, 특히 사회자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2) 사회적관계망(연결망)은 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연계되어 있다.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동질성이 약화된 지역사회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의 붕괴되고 이는 사회적통제의 약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범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Rose & Clear, 2002: 184).

3) 콜만이 가족 내 사회 자본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강도라는 개념으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의 존재여부, 자녀수,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이다(유석춘 외, 2002: 111).

청소년 학업포기율에 관한 영향력은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⁴⁾

Putnam(1993)은 도시 슬럼가의 높은 범죄율은 사회자본이 침식된 지역 사회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논의한다. 빈곤한 흑인과 라틴계가 주로 사는 도시 슬럼가의 만성적인 문제인 높은 범죄율은 실직과 교육의 부재, 그리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과 같은 각종 기회로부터의 차단에 기인하는데, 슬럼가의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자본의 결핍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슬럼가의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의 일부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연계망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

케이스와 카츠(Arne Case & Lawrence Katz)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변수를 통제할 때 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시민참여의 혜택을 받는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도심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는 지역에 사는 도심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학교 중퇴율이 낮고 취업율은 높은 반면에 마약 복용율 및 비행율이 낮게 나타나 청소년비행과 사회자본이 취약한 지역사회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유석춘 외, 2002: 134 재인용).

사회자본의 교정 분야에의 적용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또는 재범예방에 관한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월프와 드레인(Wolff & Drain, 2004)은 수형자의 사회 자본을 사회와의 격리와 처벌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 자본을 수용자의 시설생활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연결하는 가교로 보고 있는데, 수용자들의 가족 또는 친구 등 외부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은 출소 후 적응과정에서 필요한 가용자원이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용생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용자의 정체성(identity)과 효능감(efficacy) 역시 외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교정시설에서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수용생활에의 적응력 향상 및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

4) 양친부모 밑에서 자녀가 혼자이며 어머니가 자식의 대학진학을 기대하는 경우 학업포기율은 8.1%인데 비해 편부나 편모슬하에서, 4명의 형제와 자라고, 어머니가 대학진학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학업포기율은 30.6%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Coleman, 1988).

과가 있으며, 이때 가족과의 연계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형자들의 외부와의 유대 및 강한 연계는 자원이며, 이러한 자원을 유지하고 자원의 동원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논의한다(Mills & Codd, 2008; Wolf & Drain, 2004; Rose & Clear, 2002; Howser & McDonald, 1982; Holt & Miler, 1972).

재범예방에 관한 지역사회수준의 접근은 출소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Burchfield & Mingus, 2008; Murray, 2007; Bazemore & Erbe, 2003; Rose & Clear, 2002). 예컨대 로즈와 클레이(Rose & Clear, 2002)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연계망이 강화될 때 출소자의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소자들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s)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이 약화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되며 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해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센터(주민센터)에서는 출소자에게는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모델이 되어 주는 한편 전과자에 대한 투표권과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예: 대출이나 주택구매에 대한 지원)를 강화시킴으로서 전과자들은 자신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느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상담과 같은 접근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시켜서 사회 자본을 높이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소자의 사회통합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연결망을 기준으로 여성 수형자의 인종 나이,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라이식과 동료들의 연구를 들 수 있다(Reisig, Holtfreter, & Morash, 2002)

한국사회에서의 사회 자본에 대해 유석춘 외(2002; 49-51)는 혈연, 연고, 비공식적 관계망 등 풍성한 사회자본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의 연고는 서로를 묶어 주는 강한 연대(폐쇄성)와 서로에 다리를 놓아 주는 약한 연대(개방성)를 동시에 오갈 수 있는 유연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시민사회와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 이에 비해 사회자본이 과잉 생산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자본은 오히려 범조비리와 같은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이웅혁, 2006).⁶⁾

사회자본과 관련된 국내의 경험적 연구로는 우선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범죄예방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김성언(2004: 70-7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려면 범죄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연결망에 참여하는 것과, 규범을 강화하여 규칙 위반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한다. 특히 사회 내 처우에서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김승만·신연희의 연구(2005: 63)에서는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박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해체를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사회 자본을 잃게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반복되는 재범을 통해 강력범으로 발전하게 되는 강력범의 상당수는 출소 후 돌아갈 집, 반가이 맞아 줄 부모나 친척은 물론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연계망도 없었던 것이 재범의 반복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승만·신연희, 2005: 152).

사회 자본에 관한 이상의 논의들을 출소자재범예방에 적용한다면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사회와의 연계가 활발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출소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지자원을 많이 가지게 될

5) 부정적 측면으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비공식연결망을 통해 형성된 사적신뢰가 열린 관계망을 통해서 공적인 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개인들간의 신뢰관계가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파당으로 전환해 온 점을 지적한다(유석춘 외, 2002: 50-51).

6) 서구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개인주의와 경제적 합리성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과잉 생산되어 오히려 연고주의 정실주의 파벌형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이웅혁, 2006).

것이며 따라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성원들이 출소자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성원으로 수용하거나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수형자의 사회적 연계망의 정도(외부접촉정도, 가족의 지지정도), 지역사회 성원들과의 연대의식(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특성상 사회자본의 효과에 관한 종속변수는 재범률 대신 출소 후 사회적응가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출소 후 사회적응가능성은 수형자가 시설 내에서 출소 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냐와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개의 지방교정청별로 2-3개의 교도소가 포함되도록 설계하여 9개의 기관에서 233부의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⁷⁾ 조사자가 일대일 또는 작업장 별로 배포하여 일시에 수거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6월 5일부터 2006년 7월 14일까지이다.

조사대상 수형자는 2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잔여형기(또는 출소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되었으며 출소가 임박하여 사회적응이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해 있는 수형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7) 본 연구의 조사기관은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군산교도소이다.

통해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의 사회접촉정도가 많을수록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을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을 것이다.

셋째, 수형자의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을 것이다.

넷째, 수형자의 사회접촉정도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일 것이다.

다섯째, 수형자가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을수록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일 것이다.

여섯째, 수형자의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일 것이다.

3. 주요변수의 측정

가. 사회자본

먼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회적 연결망과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수형자들의 “외부접촉정도”, “가족의 지지정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외부접촉정도”는 지난 1년간 서신 정도와 접견 정도를 합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정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⁸⁾ 각 문항은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8) 가족의 지지정도는 ① 가족이 만나길 거부할 것이다; ② 가족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③ 가족은 이미 나를 포기했다; ④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할 때 도와 줄 것이다; ⑥ 가족들은 나

.768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결합에 대한 태도”는 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성원들과의 연대의식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출소 후 복귀과정에서 지역사회
성원들과의 관계회복 가능성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를 측정하였다.⁹⁾ 척
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746이다.

나.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은 “출소 후 대비정도”
와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출소 후 대비정도”는 출
소 후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김승만 · 신연희, 2005; 박철현, 2000; 김지
선, 1995)에서 수형자들이 보고한 출소 후에 대한 우려사항 또는 출소 후
직면하게 될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¹⁰⁾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87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형자의 태
도에 관한 사항이다. 수형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성취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따라서 출소 후 사회적
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삶을 통제할
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출소 후에 성공 또는 실패할 것인가를 예측
할 수 있는 수형자의 태도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Lawrence &
Farrell, 2004; Maruna, 2001). 만약 수형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소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믿게 됨으로써 사회복귀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들에 대해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으로 논의
되고 있다(MacKenzie & Goodstein, 1986).

를 믿고 위로해 줄 것이다.

9)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는 ① 가족관계회복에 대한 두려움; ② 친구 및 동
료관계 회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③ 전 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에 대한 두
려움으로 구성된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10) 출소 후 대비정도는 ①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 ②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 ③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 ④ 사회정착 비용 조달방법에 대한 대책 ⑤ 전과자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책 ⑥ 범죄에 유혹에 대한 대책이다.

자기효능감은 틱톤과 워딩턴(Tipton & Worthington, 1984)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으며¹¹⁾,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823으로 나타났다.

IV. 주요 발견사항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88.4%이고 여자가 11.6%이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32.7%이고, 40대가 24.5%, 20대가 22.3%, 50대가 12.9%, 60대 이상이 2.6%의 순이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54.4%, 미혼이 45.6%로 기혼이 미혼에 비하여 약간 더 많다. 기혼자의 혼인상태는 법률혼이 44.7%이며, 이혼이 39.6%로 수형자의 결혼관계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배우자와의 결합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47.2%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출소 후에 배우자와 결합 및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죄명은 재산범은 19.5%, 성폭력범 13.4%, 강력범 51.6%, 폭력범 7.4% 등의 순이다. 전과경력은 교정시설 입소경험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대상자의 45.7%가 입소경험이 있으며, 54.3%는 입소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¹²⁾

11)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12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②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하다; ③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④ 나는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⑤ 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해 낼 것이다; ⑥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 ⑧ 나는 힘든 일을 하기에는 의지력이 약하다; ⑨ 나는 때때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⑩ 나는 때때로 어려운 과업을 피한다; ⑪ 전과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드물다; ⑫ 나는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

12) 법무연수원의 집계에 의하면 2006년 전체 수형자인구 중 입소경험이 있는 수형자는 51.4%이다(법무연수원, 2007: 274).

2. 사회자본과 사회적응 가능성에 관한 회귀분석

이하에서는 사회자본(외부와의 접촉 정도, 가족의 지지정도,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이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출소 후 대비정도”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데 적절한 요인인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1>은 회귀분석 모형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출소 후 대비정도는 외부접촉정도($p<.01$), 가족지지정도($p<.001$), 지역사회결합태도($p<.001$)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소 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효능감 역시 독립변수들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부접촉정도($0<.05$), 가족지지정도($p<.001$), 지역사회결합태도($p<.001$)에 따라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형자가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그리고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 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구 분	외부접촉 정도	가족지지 정도	지역사회결합 태도	출소후대비 정도	자기 효능감
외부접촉정도	1.000				
가족지지정도	.166*	1.000			
지역사회 결합 태도	.099	.344***	1.000		
출소 후 대비정도	.207**	.409***	.287***	1.000	
자기효능감	.139*	.366***	.384***	.368***	1.000

주) *: $p<.05$; **: $p<.01$; ***: $p<.001$

<표 5-2>의 모형 1은 출소 후 대비정도와 사회자본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모두 출소 후 대비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의 지지정도가 출소 후 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신·접견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정도가 높을수록($p<.05$),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수형자가 인식하고 있을수록($p<.001$), 그리고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p<.05$) 수형자의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형자가 출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냐는 수형자의 외부와의 접촉정도, 수형자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지지정도, 그리고 지역사회결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정도는 수형자가 출소 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모형1의 모델 적합도는 양호하며($F=13.951$, $p<.001$),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한 출소 후 대비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20.10%($R^2=.201$)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모형2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자본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요인 중 가족지지정도와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는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부와의 접촉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95% 신뢰수준).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p<.01$),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기효능감은 미래에 대한 자기행동의 강화효과와 관련된다. 따라서 수형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출소 후 재범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한다면 수형자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형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회통합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3) 모형1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text{출소 후 대비정도})=7.216+.324X1(\text{외부접촉정도})+.371X2(\text{가족지지정도})+.247X3(\text{지역사회결속력태도})$

모형2의 모델 적합도는 양호하며($F=20.301$, $p<.001$), 세 가지 요인들이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26.0%($R^2=.260$)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수형자의 외부와의 연결망, 외부와의 결속력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들은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에 따라 출소 후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는 달라졌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부와의 접촉정도, 가족의 지지정도,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태도와 같은 사회자본 요인들은 출소 후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수형자의 태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의 외부와의 접촉정도가 많을수록, 수형자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의 지지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결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수형자들이 출소 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2> 사회자본과 출소 후 적응가능성에 관한 회귀분석

구 분	출소 후 대비정도(모형 1)		자기효능감(모형 2)	
	t	B	t	B
외부접촉 정도	3.483*	.324	.559	.113
가족지지정도	4.153***	.371	3.224**	.404
지역사회결속력 태도	2.141*	.247	5.621***	.902
상수	7.216		20.330	
F 비율	13.952***		20.301***	
R ²	.201		.260	

주) *: $p<.05$; **: $P<.01$; ***: $p<.001$

14) 모형2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text{자기효능감})=20.301+.404X_1(\text{가족지지정도})+.902X_2(\text{지역사회결속력태도})$

V. 출소자 재범예방 정책의 방향

본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수형자가 충분한 사회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 수용된 동안 사회자본의 고갈을 막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이 충만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재범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본 조사결과에서 함의하고 있는 출소자 재범예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강화는 수형자가 출소를 준비하는 교정시설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소 후를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수형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나아가 출소 후에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사후관리가 된다면 재범예방의 효과는 보다 높아진다고 한다(Gaes, 2002).

우선, 시설단계에서의 사회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가족 및 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용자 처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귀휴,¹⁵⁾ 사회견학,¹⁶⁾ 사회봉사,¹⁷⁾ 가족만남의 날¹⁸⁾, 가족만남의 집,¹⁹⁾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캠프²⁰⁾을 들 수 있으며, 점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신설 및 확

15) “귀휴”는 구금으로 인한 고립을 완화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부터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05).

16) “사회견학”은 사회와의 단절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의 변화된 실상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7)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봉사”는 사회적응, 사회유대 관계 회복, 그리고 수용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8) “가족만남의 날”은 우수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배양과 무기수형자 및 고령자의 가족과의 유대감 조성을 위하여 1993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1993년 첫째 2,8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 인원이 늘어가고 있다(법무부, 2005).

19)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들이 가족과 숙식을 함께하는 심층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경우는 2005년 한 해 동안 373명만(전체수형자의 1.1%에 해당)으로 극히 한정적인 수준이다(법무부, 2005).

20) “가족캠프”는 수형자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여성장기수형자와

대 실시되는 등 이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참여수형자 및 서비스의 내용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본 조사결과 서신 접견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수형자의 출소 후 대비정도는 높았으며, 가족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수형자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단계”에서 사회자본의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형자들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접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고 바르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접견 진행과정에서의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 접견시간의 제한, 그리고 접견실의 불편함과 열악한 환경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과의 접촉 수단에 관한 자격제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형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자서신, 가족만남의 집, 전화사용, 귀휴, 사회견학 등은 일정 급수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에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악화되기 쉬운 초기 수형자들에게는 정작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수형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수형자 및 지역사회 성원 모두가 상호간에 연대의식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지역사회결합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자기평가인 자기효능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에 관한 거시적 정의에 의하면 지역사회성원들의 연대의식과 결속력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수형자들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사회성원으로 평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국내에서는 최초이다. 2006년 봄에 여성 장기수형자 8명과 그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캠프를 법무부의 주관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2007년 8월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9가족(28명)과 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캠프가 각각 1박 2일로 진행되었다(전영실 · 신연희 · 김영식, 2007:29).

서의 정체감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역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을 공동체 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출소자에 대한 지지자원으로서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출소 후 지역사회단계에서의 사회자본의 강화는 시민들이 범죄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출소자 적응에 위한 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수준의 지원제도로는 “갱생보호사업”,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 제공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²¹⁾ 빈곤한 출소자 및 가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²²⁾ “출소자 신원보증보험제도”²³⁾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수형생활로 인해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출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대상 출소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첫째, 지역사회 성원들의 출소자에 대한 편견과 냉대를 교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자본 강화에 관한 지역사회 수준의 접근이 될 것이다. 출소자를 사회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출소자의 사회통합에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²⁴⁾ 구체적으로 지역

21) 출소자 주거지원제도는 법무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조사업으로 우리사회의 특수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갱생보호대상자를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갱생보호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 법무부와 건설교통부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현재 갱생보호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2005년에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14호를 지원하던 것을 확장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임대 1,500호와 전세임대 300호 등 총 1,800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법무부 보호국, 2006).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빈곤한 출소자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생계가 곤란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출소 전에 미리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출소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 출소자에 대한 제반 문제를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3) 출소자 신원보증보험 제도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원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소예정자 취업 알선시 고용업체의 신원보증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예산을 들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줌으로써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재범방지의 정책의 일환이다.

24) 반면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오히려 출소자들로 하여금 지역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연계망 구축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실패하게 함으로써 재범에 이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출소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Rose & Clear, 2002).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 출소자 재범예방,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확산하는 것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출소자와 시민들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²⁵⁾

둘째, 수형자 가족 및 빈곤한 출소자에 대한 후원 회원을 확산시키는 것도 출소자에 대한 사회 자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출소자 및 가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범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재범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이루게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출소자 적응지원에 관한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 주민을 포함한 협력체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범죄문제 해결에 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연계망을 통한 자원을 결집한다면 출소자는 재범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상호호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소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에서 특히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출소자가 사회에 보다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교정시설, 보호관찰 등), 민간 전문가(갱생보호회, 출소자 교육 전문기관 등), 민간단체 그리고 관련되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협력하는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과 통합적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5) 민간(종교단체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들을 활성화한다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의 지역사회 성원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수용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행사 등은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 가족, 그리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수용자 및 출소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VI. 맺음 말

본 연구는 재범예방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가족자원, 사회와의 연계 등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들은 교정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한국사회에서 수형자의 적응지원과 관련하여 사회 자본의 활용 및 강화방안을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이 출소를 앞 둔 수형자에 한정함으로써 출소자가 배제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한 종단적 연구는 후속연구의 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교정 분야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언, 2004.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동원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승만·신연희, 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1994.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수용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25호: 9-10.
-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철현, 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호국, 2006.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지원 사업”,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내부자료.
- 법무부, 2005. 「법무연감」. 법무부.

- 법무연수원, 2007. 『범죄백서 2006』, 법무연수원.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유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영(편역), 2002.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 이웅혁, 2006.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제 18권(2): 441-458.
- 전영실 · 신연희 · 김영식,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갱생보호공단, 2006. 「갱생보호사업안내」, 한국갱생보호공단.
- Bazemore, Gordon & Carsten Erbe, 2003. “Operationalizing the Community Variable in Offender Re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Developing Intervention Social Capital”.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 (1): 246-275.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 Burchfield, Keri & William Mingus, 2008. “Not in My Neighborhood: Assessing Registered Sex Offenders’ Experiences With Local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tro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5): 356-374.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94-121.
- Gaes, Gerald, 2002. “In-Prison Programming and Preparation for Release and Reintegration”. From Prison to Home. Conference Paper funded b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olt, Norman & Donald Miller, 1972. Exploration in Inmate-Family Relationships. California: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 Howser, James F. & Donald MacDonald, 1982. “Maintaining Family Ties”. Corrections Today, August 1982: 96-98.

- Lawrence, Sarah & Jill Farrell, 2004. *Returning Home: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Prisoner Reentry, Maryland Pilot Study: Findings from Baltimore*.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Kenzie, Doris Layton & Lynne I. Goodstein, 1986. "Stress and Control Beliefs of Prisoners: A Test of Three Models of Control-Limited Environm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6): 209-228.
- Maruna, Shadd,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lls, Alice & Helen Codd, 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Vol. (55): 9-24.
- Murray, Joseph, 2007. "The Cycle of Punishment: Social Exclusion of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Vol. (7): 55-81.
- Portes, Alex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2: 1-24.
- Putnam, Robert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1): 65-78.
- Reisig, Michael D., Kristy Holtfreter, and Merry Morash, 2002. "Social Capital Among Women Offenders: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Social Networks and Resource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18): 167-187.
- Rose, Dina & Todd Clear, 2002, "Incarceration, Reentry and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in the Balance", *From Prison to Home*. Conference Paper funded b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Tipton, R. M. & E. L. Worthington, 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iency: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8: 545-548.
- Wolff, Nancy & Jeffrey Draine, 2004. "D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Ties That Bind?"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Vol. (10): 457-490.

A Study on Preventing Recidivism after Release from Pris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Shin, Yeun-Hee*

This research is aimed at discovering the factors that have implications for possibility of offender's reintegration to society after release and presenting desirable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recidivism.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nin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valid data of 233 inmates of soon to be released were obtain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Social capital factor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ng into society. The stronger network with outside the prison and support of families the inmates have, the more positive attitude they hold about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ng into society after release, inmates prepare themselves for release more actively and have more positive self-efficacy about themselve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bond with families and their support and eliminate obstacles they face joining in commun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offenders'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rough more solid social capital.

주제어 : 사회자본, 재범예방, 사회적응, 출소자

Keywords : social capital, preventing recidivism, social reintegration,
ex-offenders

*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Ph.D. in Sociology